



전설속의 ‘씨없는 수박’ ... 우장춘

전후 피폐한 농산물의 자급체계 수립

글_ 박성래 한국외국어대 교수 parkstar@unitel.co.kr

○ 장춘(禹長春 1898~1959. 8. 10) 만큼 극적 일생을 살고 간 과학자도 드물다. 그는 일제 시기에 당시 기준으로 치면 역적(?)의 아들로 태어났다. 게다가 그의 어머니는 일본인(酒井伸)이었다. 그리고 그는 해방된 조국에 일부러 돌아와 외롭게 여생을 살며 많은 제자를 기르고 이 땅에서 작고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 속죄하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걸까?

그의 과학자로서의 업적에 대해서도 드라마 같은 오해가 그의 일생을 색칠해 주었다.

그는 엉뚱하게도 ‘씨없는 수박’을 처음 발명한 과학자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이는 조금 과장된 평가지만, 그렇다고 과학자로서의 우장춘이 아무 공헌을 남기지 않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아니 그는 해방 당시 한국인 최고의 과학자의 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하고, 농학 분야에서는 단연 최고 과학자였을 것이다. 그의 이름이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은 이 까닭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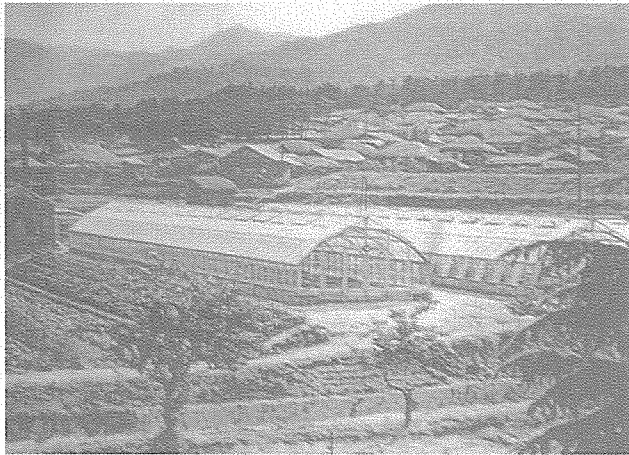
선친 따라 일(日)망명... 암울한 유년기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아버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버지 우범선(禹範善 1857~1903)은 훈련대 제2대대장으로 1895년 명성황후(민비)를 시해하는 데 가담한 한국측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일본에 망명한 그는 동지였던 박영효(朴泳孝)

가 신호(神戶 : 고베)에서 경영하던 조일신숙(朝日新塾)에서 윤효정 등과 조선인 학생들을 지도했다. 그러나 1903년 이 학교가 해산되자 살길을 찾아 히로시마(廣島)의 구레(呉)라는 도시로 이사했다. 때마침 일본에 피해 있던 고영근(高永根 ?-?)은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새 집으로 그를 찾아가 윤효정이 그를 해치려한다는 비밀정보를 알려주는 듯이 그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했다. 둘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고영근은 우범선이 살고있는 구레시에 집을 빌려 살면서 집들이에 그를 초대했다. 1903년 11월 24일 집들이에 온 그를 고영근은 미리 준비한 단도로 목과 어깨를 찔렀고, 그의 종자 노원명(盧遠明, 혹은 魯允明)이 철퇴로 그의 머리를 몇 차례 내리쳤다. 그를 살해한 고영근과 노원명은 즉시 일본 경찰에 자수하며 ‘국모보수’(國母報讎)의 문구를 보여 주었다. 황국 협회에서 독립협회로 방향을 바꾸기도 했던 고영근의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것이 없는 듯하다. 하지만 그가 민비 살해범을 응징하여 국내에서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답은 별로 크지 못했다. 이미 조선 왕조는 크게 기울어져 있었던 때문일 것이다.

이런 비극 속에서 5세짜리 우장춘은 가난과 일본인들의 차별 대우 속에 ‘애비 없는 자식’으로 던져진 셈이었다. 그 후 그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처음 고아원에 맡겨졌던 그는 바로 어머니 형편이 나아져 어머니 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버지가 이사 왔던 그 도시에서 그는 소학교를 거쳐 1916년



중앙원에연구소 전경, 1954년

구례(吳)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도쿄제국대학 농학 실과에 입학했다. 그는 도쿄(京都)제대 공학부에 가기를 바랐으나 관비장학생인 그에게는 조선총독부가 학비를 부담했는데, 총독부에서 그를 농학 실과로 지정했던 것이다. 원래 이 과정은 정식 대학과는 좀 달리 농촌지도자 양성 코스로서 수준도 좀 낮았고, 뒤에는 도쿄고등농림학교(지금도 도쿄농공대학)가 되었다.

조선인 최초, 도쿄제대 농학박사 취득

대학을 나온 우장춘은 1919년 8월부터 거의 20년 동안(1937. 8월 까지) 일본 농림성 농사시험장의 기수(技手)로 일했다. 연구직에 가까운 성격 덕택에 그는 이 기관에서 일하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고, 그 덕택에 1936년 5월 모교 도쿄제국대학에서 농학박사의 학위를 얻게 된다. 그는 당시 조선인 최초의 농학 박사였음은 물론 유전육종학의 권위자가 되어 있었던 셈이다. 학위를 얻은지 1년 남짓 지나 그는 1937년 9월 교토(京都)의 다카이(龍井)종묘회사로 직장을 바꿔 초대 연구농장장이 되었다. 그리고 해방 직후 이를 그만두고 교토의 장법사(長法寺)근처에 있는 농장을 경영하여 5년이 되었다. 그런 사이에 그는 조국에서 부름을 받게 되어 귀국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초대 대통령을 맡았던 이승만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귀국하여 한국 농학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당시 이 땅은 모든 분야가 황무지였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사정을 무시한 채 그 때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한 남한의 실정에 비판의 소리를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은 부



연구장면

분적으로는 바로 이렇게 페튜니아 인공교배 모습 모든 분야가 인재 부족에 허덕였던 까닭이기도 하다.

다행히 농학자로서의 우장춘은 친일파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었음은 물론이다(물론 그의 아버지는 친일파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한국에는 도대체 이렇다할 농작물의 종자조차 제대로 대줄 수가 없는 지경에 있었다. 게다가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나라는 온통 피폐할대로 피폐하고 있었다. 아직 일제 시기에 이어 여전히 농업국가라 할 수밖에 없던 당시로서는 우선 농업을 일으키는 것이 급선무였다.

해방 후 귀국, 농업과학연구소장 취임

당시 조선이 낳은 대표적 농학자가 바로 우장춘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국의 초청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6.25 전쟁이 나던 1950년 3월 8일 부산으로 귀국했다. '우장춘박사 한국추진위원회'란 단체가 그의 귀국을 앞장서 주선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5월 이미 그는 농업과학연구소의 소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최고의 존경을 받으면서 당시의 국제적 학문 성과를 바탕으로 육종 연구를 추진한 결과 국내에 맞는 우량 종자의 생산과자급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일제 시기 동안에는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각종 농작물의 종자를 들여왔지만, 해방과 함께 그 길이 끊어져 한국 농업은 커다란 곤경에 처해 있었다. 예를 들면 김치를 만드는 채소류는 당시 생활의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었지만 이것마저 순조롭지 못했다. 그는 일본에서 개발했거나 얻어온 종자에 육종 연구



연구노트

를 더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우수한 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일본에 있을 때 그는 100% 겹꽃 페튜니아 종자를 가장 먼저 개발함으로써 사카타

중요회사가 큰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했는데, 말하자면 그는 귀국하여 채소류의 종자 등을 개량하여 비슷한 공헌을 시작한 셈이다. 그의 주도로 배추 '원예1호' 및 양배추 '동춘' 그리고 양파도 몇 종류가 개량되었다. 이런 일대 잡종을 민간종자회사에 분양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가을재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형에 알맞은 품종 육성의 계기가 되었다. 당시 채소 재배는 불결하고 기생충 감염이 심했으므로 우장춘은 깨끗하게 재배방식을 고쳐 그 생산된 채소를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에게 팔아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도입한 굴의 시험재배와 품종개량은 이후 제주도과 남해안 일대가 대규모 감귤 생산지가 되는 데 커다란 힘이 되었다. 무병 씨감자를 대관령에서 시험재배에 성공하여 이 곳이 감자 특산지로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나이가 그는 벼의 품종개량과 같은 보다 중요하고 독창적인 연구를 막 시작하였으나, 갑자기 그가 병으로 눕는 바람에 그 성과는 후배들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채소, 감귤, 감자 등 품종 개발

우장춘이 남긴 공헌은 이런 많은 종자 개량과 보급 이외에도 그 방면에 수많은 제자를 길러 놓은 점을 들어야 한다. 그는 원예와 육종 연구를 담당할 원예시험장(현재의 원예연구소)을 창설했다. 당시 그의 지도 아래 활동했던 사람만해도 40명 정도였다. 그는 당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그가 죽은 다음 이들이 '원우회' (園友會)를 만들어 스스로를 '우장춘교도' (教徒)라고 부를 정도였다. 또 그 연구소는 원예연구소로, 그리고 1953년에는 한국농업과학협회가 창설되어 그들 활동 무대가 넓혀졌다.

그가 '씨없는 수박'을 처음 만들었다는 것은 과장된 전설일 뿐이다. 그가 귀국하기 전에 일본 학자가 처음 그런 걸 만든 일이

있고, 우장춘도 1953년 그 방법을 국내에서 실험해서 육종학의 중요성을 알리려 한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그런 노력이 그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 한국 육종학 발달의 씨앗 노릇을 한 셈이다.

그렇듯 해방 직후의 황무지였던 한국 농학 발달을 주도했던 우장춘은 1959년 8월 10일 위십이지장 궤양으로 사망했고, 장례는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묘소는 수원의 농촌진흥청 산기슭에 있고, 이은상의 추모시가 새겨져 있다. 또 그의 위상이 높아지자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가 귀국하여 농업 연구를 하던 부산시 동래구에는 <우장춘기념관>이 세워져 1999년 10월 개관했다. 그 곳에는 자유천(慈乳泉)이란 우물이 있는데, 그가 어머니를 추모하여 만든 것이다. 1953년은 그의 어머니가 작고한데다, 큰딸이 결혼하는 해였으나 그는 일본에 갈 수가 없었다. 이 때 들어온 부의금을 들여 그는 이 우물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아주 특이한 삶을 살고 갔다. 분명 그는 아버지의 죄를 용서받겠다는 뜻에서 귀국한 것 같다. 단양 우(禹)씨로 어릴 때 이름은 명전(命傳), 영어논문에는 Nagaharu U, 또 일본 호적에는 스나가 나가하루(須永長春)로 되어 있지만, 그는 평생 우 씨를 고집하며 살았다. 아버지가 민비 시해의 주동자로 쫓겼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웠을지 모른다. 하지만 후세의 역사가 꼭 그의 아버지 우범선을 친일파 또는 역적으로 평가할지는 아직 모를 일이다. 하지만 민족주의가 크게 강조되던 시기를 살면서 그는 일본인 어머니(酒井伸)와 일본인 아내(須永小春), 그리고 결국 한국어를 잘 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그는 아내와 2남 4녀를 뒤로 하고 부산에 돌아온 다음 일본에 가보지 못한 채 사망했다. 그의 장례 때 부인이 한번 찾아왔을 뿐...

우장춘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의 명성은 널리 알려져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이름이 되었지만, 막상 한국에서는 그의 전기조차 제대로 기록되어 나온 적이 없다. 다만 일본 여류 전기 작가 쓰노다 후사코(角田房子)가 1990년 <나의 조국>이란 제목으로 그의 일생을 소개했고, 그 책이 2년 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을 정도다. 이 번역된 책 이름이 <조국은 나를 인정했다>로 되어 있다. 우장춘이 임종 3일 전 대한민국 문화포장을 받으면서 한 말이었다. 그는 그 정도로 조국이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바람은 성취되었던 셈이다. ㉮